

고전소설 같은 경우,
보통 초반에
누가 무슨말을 하는지 못잡아서 제대로 못읽는 경우가 많은듯

6 그래서 각 인물을 정리함

국어 영역

역시 이름 장난!
이름만 파악해도 절반먹고 들어감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둥이가
하는 말

심어 일이 지날 무렵 노비 막둥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낭군계선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특별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별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슬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둥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소인이 낭군을 위해 마루의 ㉠계책을 올릴 테니, 낭군계선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다나?” 김생

요사이는
긴 곳(노란색)
에서
줄 제되는게
많음
: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읽음

그리고 또 다른
인물 파악
주인

“낭군계선 급히 주효(酒肴)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서 손님을 전별(餞別)하려는 듯 하십시오.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
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 식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라 하지요. 낭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시는 송별
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겠습
니다.’라 하지요. 이때 낭군계선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며, 세
번째는 필히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흥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일지요.”

읽으면서 ‘주인->할말’이라는 관계를 잡는게
힘들었음 (주의!)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생은 그 계책을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에
가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역시 고전 소설은
인물 잡기가 중요함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厚意)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일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낭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룡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 홍화문 앞길을 지나
가고 있었다네.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 오로지 그 낭자만
생각했다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낮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
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웠으나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서
말했다.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댁 시비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알것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양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어여뻐 여기시고 장차 소실(小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쟁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
려고 부인에게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
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습죠. 참으로 어려워요!”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에게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계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
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18.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 ㉡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 ㉢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 ㉣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
- ㉤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한다. **벤은 쉽게 체크 할 수 있을 듯**

대화에서 긴 부분을 절대로
빠르게 넘어갈 생각?
금지! 금지!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 ②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 ③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 주었다.
- ⑤ 생은 천상의 일에 빚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김생이 노파가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파는 번거로움을 표현하지 않았음

주인과 노파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한참 시간 썼을 듯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숙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읽으면서, 지문 내용이 떠오름

<보기>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억남

- 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퍼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 남(노파)가 잘 도와주고 있어서 기분 좋은데, 왜 내적갈등이 있을까?

또 한편 <보기>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논의하려 함, 뭔가 5번 선지의 내적 갈등은 핏트가 한참 잘못됨

문제가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
해석 안함

<보기> 본 이후에
각 수의 의미가
분명해짐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중효에 대한**
이 두 일 발낸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다음에 하고자 하여 ① 십재 황황(十載遑遑)하노라 /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친(林岾)이 좋으니라 **자연친화에 대한**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A]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 <제3수>

출(出)하면 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 <제8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B]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 <제13수>

성현의 가신 길이 ②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C]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탄들 어떠리 / <제17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③ 백세(百歲)인들 길겠노뇨 /
④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십재 황황: 십 년을 허둥지둥함.
* 처군택민: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음.
* 조월경운: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발을 감.

(나) 처음에는 소설인줄, 그런데 수필이네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거름*을 구해 오길 권하였다.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 보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절은 기와를
[D] 쓰기에 거름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
보지 않았다.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취서사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겨를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
에서 낚아채 가며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뵈아 대어**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음은 그
힘의 강약에 따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중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난 민망하다! (중략)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
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
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였다.

「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E]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은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
하는 집 아래채가 세 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겨를이 필요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삼계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삼계 서원에 귀속된 집이었다.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
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담담하게 한
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하
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 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
리라. 으음... 자존감이 낮은건가???**

맹자는 “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이극은 “궁할
때에 그 헤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하였다. 나는 궁할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또
어른에게까지 배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미
너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낸다.

- 김낙행, 「기취서행」 -

* 겨를: 껌질을 벗긴 삼대

22.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핍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백년 즐거도 짧다 = 더 늘고 싶다!!
 놀 시간이 너무 짧다고 징징거리는 건데
 이상하게 해석함

1수, 2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다름

1. 잠깐 선지를 봐서, 한 번 먼저 읽어볼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권호문의 「한겨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진밀히 연결되어 있다.

- ① <제3수>의 ‘입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 텐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거름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글쓴이는 거름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글쓴이는 거름을 구하려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점심 때문이라고 글쓴이는
 추측하고 있다.

자주 나오는 내용

주황색 부분 읽고,
 (나)지문이 더 뚜렷하게 이해하게 됨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골벽적으로 뒤섞여 밝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고전시가까지 풀고 딱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함.

근데 소설 읽다가 답답한 문체라서 천천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10

정일이 한 명 딱 잡고 읽어감

국어 영역

여기 문장 지렸음, 20 복문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이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은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감정표현

정일은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었지만 자기의 눈을 치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나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정일은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은 조금씩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은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은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잔란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중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은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 정일은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의 귀에도 함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중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은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어 머지? 뭘 일이나?

이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아버지에 집중하게 됨

시점이 좀 지 맞음

(중략) 그래서 주어 표시하고 감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은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아버지=만수노인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은 물을 보기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은 요를 두어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여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여항에서 적 여항으로 **㉡**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환듯이 둘러 보다가 **㉢**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B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은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은 견장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 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은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소설에서 A와 B 시전했을 줄이야...

2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보면서 어떤 내적 갈등 오지게 나온다고 생각함

- ① **희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상성**을 강화한다.
-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시점이 엉망이긴 했지만, 중심인물의 시선에 따라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③ ㉢는 용팔이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④ ㉣는 아버지와 용팔이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는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이 선지, 잘못 해석할 수도

해당 선지의 정확한 해석: 정일이가 용팔이의 행위에 실망함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근데, 지문에서 용팔이가 자기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정일)는 의지가 없다

고전이 아닌데 인물가지고 장난치네

아버지가 임하는 바로서 천천히 읽게 되는 듯

또 갑자기 정일어로 변함

<보기> 때문에 30번을 먼저 읽고
29번을 들어가니, 7은 바로 잡혔다.

국어 영역

11

29.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용팔이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키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렇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 ④ ㉠은 용팔이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 ⑤ ㉠은 용팔이의 '공포'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일단 용팔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의 이중성을 깨닫는 장면이다.

그리고 또 <보기>가 보이길래, 읽음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일이 답답한 인간이긴 하지. 역시.
<보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축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 ①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축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포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30번 옳은 선지를 읽으면서, 소설에서 읽었던 내용을 회상함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붙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환빠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입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

마음 가난하거나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 조지훈, 「맹세」 -

이런 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것 같아서 싫음

(나) 또 끊어주자.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 내 언어 속에 서라 /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

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

봄은 자유다. /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로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

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 내 말이 옳으면

자, ㉤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 오규원, 「봄」 -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을 풀게 되었는데, 이 쪽이면 ← 일단 보기가 보여서 먼저 읽음
 포인트가 어느정도 정리가 된다.

12

국어 영역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수표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축각적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데는 활용되지 않는다.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입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피리는 결국 피를 머금은 대나무들에서 만들어짐

3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가)는 부채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피에서 희생이라는 것 피아- 결국 아침으로 이어짐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채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백'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담백은 시의 언어에 불과하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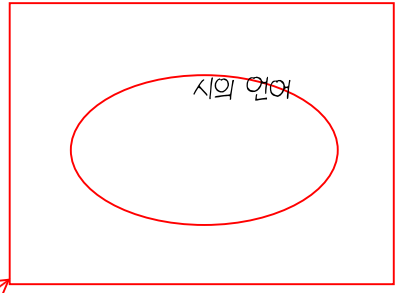
자유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됨

자유인데... 제한한다고?

<보기>에 있는 그대로 선지가 세팅됨

(나)는 34번 <보기> 읽으면서 정리가 되서, 일단 (가)에 더 집중하며 읽게 됨

시인인 '나' 시



공간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